매기 잡은 닭

옛날 어느 마을에 매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매 사냥꾼은 길들인 매를 시켜 사냥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매 사냥꾼은 매를 데리고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동물을 잡을까? 꿩을 잡을까? 토끼를 잡을까? 지난번 사냥에서 토끼를 잡았으니, 이번에는 꿩을 잡았으면 좋겠네."

매 사냥꾼은 매를 돌아보았습니다.

"얘야, 오늘은 꿩을 대여섯 마리쯤 잡아오너라. 알겠니?"

매는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꿩 사냥꾼은 매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거니, 내 말을 알아듣겠다고? 고맙다. 나는 너만 믿는다."

매 사냥꾼은 매를 데리고 야산으로 갔습니다. 야산에는 꿩을 비롯하여 여러 날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 사냥꾼이 산에 도착했을 때, 꿩 한 마리가 수풀을 벗어나 푸드득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매 사냥꾼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를 풀어 주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매는 주인의 명을 받고 꿩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꿩은 매를 피해 마을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매는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꿩을 쫓아갔습니다. 다급해진 꿩은 마을로 날아들어 어느 집에 숨어 버렸습니다.

꿩을 쫓다 놓친 매는 어느 과부의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 닭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화풀이 삼아 눈에 띄는 대로 닭들을 모두 물어 죽여 버렸습니다.

그 때 과부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과부는 자기 집에서 놓아기르는 닭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누, 누가 내 닭들을…."

과부는 정신없이 닭을 뜯어먹고 있는 매를 보았습니다.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창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 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누구 짓인가 했더니 저놈의 매가 내 닭들을 물어 죽였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과부는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멧돼지처럼 달려들어 매를 마구 때렸습니다. 닭을 먹느라 넋을 빼앗긴 매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빗자루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는 닭들을 보며 씩씩거리고 있는데, 매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우리 매가 이쪽으로 날아왔는데."

매 사냥꾼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매를 보았습니다.

"맙소사! 내가 아끼는 매가 죽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매 사냥꾼은 고개를 돌려 과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짓이지? 당신이 내 매를 죽였지?"

매 사냥꾼이 다그쳐 묻자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매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닭들을 모조리 물어 죽였기에 어찌나 화가 나는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과부는 미안한 마음에 매 사냥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매 사냥꾼은 화가 나서 펄쩍 뛰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요? 남의 비싼 매를 죽여 놓고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줄 알아? 당장 매 값을 물어내요!"

과부는 매 사냥꾼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몰아세우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매 값을 물어내라니요? 당신 매가 먼저 우리 닭들을 물어 죽이지 않았나요? 매 값을 받고 싶으면 우선 닭 값부터 물어내요."

"뭐, 어쩌고 어째? 하찮은 닭 몇 마리 죽인 것 가지고 닭 값을 물어내라고? 이 아줌마가 매 값을 떼어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군."

"하찮은 닭이라니! 남의 귀한 재산인 닭을 죽여 놓고 그게 할 소리예요? 그리고 왜 나한테 계속 반말이에요? 빨리 닭 값부터 물어내요."

"매 값부터 물어내요. 그러면 닭 값을 물어주지."

"안돼요. 나는 닭 값부터 받아야겠어요."

과부와 매 사냥꾼은 서로 매 값 물어내라,

닭 값 물어내라며 한참을 싸웠습니다.

"안되겠군. 고을 원님한테 갑시다."

"좋아요."

두 사람은 재판을 받으려고 관가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원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부가 매를 죽이긴 했지만, 오죽 속상하면 그랬을까. 이번 일은 매 사냥꾼의 잘못이커. 매 사냥꾼이 매를 잘 길들이지 못해 닭들을 물어 죽여서 생긴 일이잖아.'

원님은 과부가 닭을 기르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또 생각했습니다.

'매 사냥꾼은 매 값부터 물어내라고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 매 값을 물어주겠나. 매 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원님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궁리를 해 보았습니다.

'옳지, 그 방법이 좋겠다.'

잠시 뒤, 원님은 매 사냥꾼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매는 무엇을 잘 잡느냐?"

매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토끼도 잡지만 꿩을 잘 잡지요. '꿩 잡는 게 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꿩 사냥을 아주 잘합니다."

"으음, 그래? 매 값이 꽤 비싸겠구나?"

"그렇다마다요. 아무리 싸도 이백 냥은 주어야 살 수 있어요."

매 사냥꾼은 신바람이 나서 매 값을 올려 말했습니다.

'후후,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 가는군. 매 값을 비싸게 받아낼 수 있겠어.'

매 사냥꾼은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매 사냥꾼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솔개도 매처럼 사냥을 할 수 있지?"

"솔개는 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닭이나 개구리를 잡아먹는걸요."

"그럼 솔개는 매에 비해 헐값이겠구나?"

"헐값은요, 값도 쳐 주지 않아요. 솔개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원님은 매 사냥꾼의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흠, 이제 확실히 알겠다. 솔개는 닭을 잡고, 매는 꿩을 잡는단 말이지? 그렇다면 닭을 잡는 네 매는 매가 아니라 솔개인 셈이로구나. 저 과부가 값도 쳐 주지 않는 솔개를 잡았으니, 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만 네 솔개가 닭을 물어 죽였으니, 너는 저 과부에게 닭 값을 물어주어라."

매 사냥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 값도 받아내지 못하고, 과부에게 닭 값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님의 판결을 듣고 그 지혜에 혀를 내둘렀답니다.